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자연 숭배의 어리석음

(지혜 13, 1-6)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세관장 자캐오의 집에 머무시기를 먼저 원하신 주님, 이 자리 저희에게도 머물러 주소서.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도 타오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무리나 거친 물, 하늘의 빛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거대한 산이나 바위, 나무 또는 천체의 변화 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것에 압도당한 경험이나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기도)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힘이 센 동물이나 물질에 영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totemism, 물신숭배)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의 잡다한 정령이나 신령한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애니미즘(animism, 정령숭배)이라고 합니다. 또한 잡신이나 우상을 직접 만들어 숭배하거나, 도술적인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샤머니즘(shamanism, 무속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원시종교들은 인간 이상의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인간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신앙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심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성숙한 신앙심이 자라지 못하고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요즘 세상 에도

이러한 종교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미신의 구별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어떻게 믿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신앙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내어 주시는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당신 말씀을 통하여 풍요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무슨 일이든 자기 뜻을 이루어 줄 신적인 존재를 찾으며,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 기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신은 자기중심적이며 현세의 이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지만 참된 신앙은 스스로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따르려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장 '찬양하라' 3절까지 힘차게 노래하겠습니다.

궁금 했어요

연초가 되면 어머니는 스님께 사주를 보러 가십니다. 미래야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사주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양 생각한다면, 믿음의 재무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각성하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요술쟁이들이 가득한"(이사 2,6) 세상을 외면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 보고 (...)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 산 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는"(이사 8,19) 일이야말로 정녕코 서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연초에 알아 낸 '사주' 덕분에 해결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그리고 앞 날을 알아낸들 그것이 삶에 어떤 보탬을 주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지혜가 아니기에 전혀 인간을 도울 수 없는 헛 것입니다. 한 해 운수를 알아맞힌 염력으로 세상사에 형통하는 일 따위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스스로 제외시킨 무서운 일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액운을 면하기 위해서 굿을 하고 부적을 쓴 효과로 해결된 것이라 믿는 어리석음을 벗으세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1코린 11,12).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아래 있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진정 모릅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된 진해 중앙 성당 7구역

창원시 진해구의 중앙동에 위치한 탑산 아래에는 아름다운 성모당을 가진 약 70년의 전통의 중앙 성당이 있습니다. 중앙 성당의 7구역은 성당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으로, 그 구성원으로는 진해 중앙시장 안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중앙시장 구역 내 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신자들의 소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7구역은 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일부 신자들의 동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반원들의 축소, 기존 신자들의 노령화 등으로 한 개의 반은 소공체 모임 등 소공동체 활동을 더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1년여 정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반원들은 더욱 소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두 개 반이 서로 의논하여 하나의 구역, 반으로 통합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반장과 총무의 자연스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고, 두 개의 반이 새로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의 결속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공동체 모임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반원들이 하나 둘 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의 참석이 활발해지니 자매님들의 소공동체 참여가 더욱 여유로워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또한 반원들이 혼자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마치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듯 더욱 살뜰히 챙기는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거의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야외 소공동체 모임을 가지는데, 가까운 교구 내 순교자 묘지나 명례성지, 웅천 왜성이나 쎄스페데스 신부님 기념 공원, 장복산 공원 등으로 어르신 반원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겸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약간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음식과 친교를 나누면, 어느새 소풍을 간 듯한 즐거움과 성지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자연 피정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기도하는 반원,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반원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중앙 성당의 한 일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7구역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19-20)

〈 진해 중앙 성당 7구역 반원들 〉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